



임신과 감염성 질병-1

홍명호 가정의학과 의사

일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임신부도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있다. 어떤 감염성 질병은 임신부에 게서 더욱 심각한 정도로 발현될 수도 있고, 태어나 신생아에게 위해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 중 감염성 질환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위생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이나 음료수, 식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타액(침)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면 해로운 질병에 감염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손을 씻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감염질환 전파의 예방법이다. 손을 물에 충분히 적셔서 보통 비누질을 하고 손바닥과 손가락, 손등, 손목을 15초 내지 30초 동안 문지르고 비벼서 씻으면 된다. 향균비누나 살균비누를 사용해도 무방한데, 특별히 신경써서 씻을 곳은 손톱, 손가락 사이 그리고 손목이다. 손 씻고 말끔히 행구고 수건이나 건조기로 손을 말리면 된다.

음식을 만들기 전이나 먹기 전에는 습관적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 아기 기저귀를 갈아 주고 나서, 아이의 뒤를 도와준 후에, 쓰레기 분리수거 후, 오염된 옷 세탁 후, 고양이나 개, 거북이 등 애완동물을 만지고 나서, 텃밭이나 화초 손질을 하고 나서, 그리고 심심하고 할 일 없이 무료할 때 손을 씻는 것이다.

◎ 예방접종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체 또는 항체를 몸 안에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다. 항체는 일종의 단백질로서 감염성 질환을 앓거나 예방 접종에 반응하여 생기는데, 그 해당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해 준다.

예방접종은 적어도 임신하기 1개월 전에는 해 주어야만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불활성화 한 예방주사, 독소이드(무독화 된 독소로서 생성해서 해당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을 얻기 위한 예방주사), 면역 글로불린제(면역단백제) 등은 임신 중이라도 임신부와 태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생균 백신** : 생균 백신은 보통 건강한 성인에서는 병을 일으킬 만큼 강하지 않은 독성을 약화시킨 생균이나 생바이러스가 든 예방주사이지만 태아에게 감염되면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신 중에 임신부에게 접종해 주지 않는다. 대표적인 생균 백신은 풍진 백신인데, 임신부에게 풍진 백신을 하면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초래한다는 확증은 없으나 임신하기 전에 풍진 항체를 검사하고 그 결과 항체가 없으면 풍진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항체가 생기면 임신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이다.

〈임신 전 예방접종〉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홍역, 볼거리, 풍진, 그리고 수두의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의사와 진지하게 상의해야 한다.

★ 홍역, 볼거리, 풍진(MMR)

- 임신 중 풍진에 걸리면 태아가 사망하거나, 태어나도 선천성 난청, 백내장 같은 안 질환, 심장기형, 신경성 장애, 정신지체 발생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풍진은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오는 경한 전염성 질환이지만 태아에 감염되면 선천성기형을 일으키는 무서운 병이다. 선천성풍진증후군이라 하여 눈에 백내장 같은 결함이 오고 난청, 심장결손, 정신지둔, 행동장애 등이 온다.

- 우리나라에는 어린아이들에게 기본 예방접종으로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을 시행하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결혼 전 또는 임신 전에 풍진 면역항체를 꼭 검사해서 만약 면역 항체가 없다면 사전에 미리 풍진 예방접종을 해 주어야 한다. 임신하기 한 두 달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만약 임신 중에 풍진 면역항체를 검사했는데, 면역항체가 없다면 임신 중에 풍진 예방접종을 하면 절대로 안된다.

- 홍역은 미숙아, 태아 사망의 위험이 있다. 임신 첫 3개월 이내에 볼거리에 감염되면 태아사망의 위험이 높다. 대부분의 한국여성들은 어렸을 때 이미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았을 것이므로 홍역, 볼거리, 풍진에 대한 면역이 있겠지만, 설혹 면역이 없더라도 적어도 임신되기 한 두 달 전부터는 이 예방접종을 하면 안된다.

-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주사는 생균백신이므로 임신 한 달 전부터 임신 중에 맞으면 태아에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 임신하기 두어 달 이전에 맞아서 미리 면역체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분만 후에 모유 수유하는 어머니 임신부에게는 예방주사를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수두(물 마마)

임신 첫 20주 이내에 임신부에게 수두가 감염되면 태아의 약 2%에서 유달리 팔, 다리가 짧고, 머리통이 아주 작고, 정신지둔이 두드러지고 피부이상, 눈 이상 등의





수두증후군이 발생한다. 분만에 가까운 시기에 임신부가 수두에 걸리면 태아도 감염된다. 임신 중 수두에 걸리면 가렵기도 하고,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크다.

수두 예방주사를 맞으면 수두에 대한 면역이 생기지만, 수두 백신은 생균 백신이므로 최소한 임신 한 달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수두에 대한 면역이 없는데 이미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집에 있는 아이들의 수두 예방접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사와 잘 상의해 보아야 한다. 수두 백



신은 생균 백신이므로 바이러스가 살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 비록 그 빈도는 높지 않지만 임신부에게 수두바이러스가 전염될 위험이 있다. 이 위험은 가족들이 수두에 감염되는 것에 비하여 훨씬 더 심각하므로 의사는 수두에 대한 면역이 없는 여성이 임신했을 경우에는 집안의 다른 아이들의 수두 예방주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생균 바이러스가 들어 있지 않은 백신으로 여아 9세부터 29세의 여자에게 접종한다. 이 백신은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임신부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 **독감**

독감은 임신부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자들은 독감 계절이 오기 전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아기 분만 후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산모도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안전하다.

독감은 태아의 선천성 결손장애의 원인으로 드물기 때문에 태아 보다는 임신부에게 더 위험하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독감의 계절이라고 보고 임신하기 전, 독감이 돌기 전 가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 두는 것이 좋다.

★ 파상풍과 디프테리

파상풍과 디프테리 독소이드예방접종을 미리 맞지 않은 임신부나 예방주사를 맞은지 10년이 지난 임신부들에게 권한다. 분만 후 파상풍, 디프테리, 백일해 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다.

★ A형 간염



흔하게 걸리는 간염이지만 심하게 앓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임신부가 A형 간염을 앓으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감염될 수 있다.

A형 간염이 흔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은 불법 마약을 투여하고 있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자, 만성간염질환자,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영·유아·유치원 등의 직원들, 음식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A형 간염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임신하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 B형 간염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심각한 감염이며, 만성간염은 간 손상을 일으킴으로 임신하기 전에 B형간염에 대한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계획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 B형간염이 임신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임신 중에는 B형간염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태아에게 큰 해가 없다. 임신부가 B형간염에 감염되어 있다면 임신 중에 임신경과를 밀착 추적진료 하고 아기를 분만할 때 아기를 B형간염으로부터 예방 보호하는 조치를 꼭 받아야 한다.

• B형간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해서 아기를 분만했다면 아기를 어떻게 무사하게 보호 할 수 있을까?

분만실에서 즉시, 맨 첫번째 B형간염 예방주사와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HBIG)을 신생아에게 투여해야 한다.

이 첫번째 B형간염 예방주사와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을 출산 12시간 이내에 신생아에게 올바르게 투여하면 일생동안 B형간염 감염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두번째 B형간염 예방주사는 출산일로부터 한달 되었을 때, 세번째 예방주사는 출산 6개월 때 아기에게 꼭 접종해 주어야만 한다.

아기 탄생 12시간 이내가 아기를 B형간염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명심해야 한다. 새로 탄생한 아기에게 B형간염으로부터 보호받을 두번째 기회란 절대로 없다.

• B형간염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을까?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는 B형간염 엄마에게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모유수유의 장점이 B형간염이 옮을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크고, B형간염에 감염되는 일은 지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아기에게 B형간염 예방주사를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B형간염에 옮을 위험이 훨씬 줄어든다.

★ 소아마비

소아마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발열, 마비, 근육의 소실을 초래한다. 임신한 여성은 소아마비의 감염 위험이 있는 지역의 여행을 피해야 한다. 피치 못할 일로 반드시 그 위험 지역을 여행해야 할 경우에는 불활성화 바이러스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전에 이미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라도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 면역력을 증폭시키기 위하여 부스터 예방주사를 맞는다.

★ 폐렴구균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으로서 중이염이나 뇌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세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예방주사는 임신 전에 맞아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임신 첫 3개월에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는 것에 대한 안전성은 아직까지 증명된 바 없으므로 권장되지 않지만, 임신 둘째 3개월이나 셋째 3개월에 맞는 것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